전남 동부권에 '도립 미술관' 짓는다

300억 들여 전시실·수장고·자료실 등 2018년 준공

전남도가 오는 2018년까지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

도립미술관은 전시시설이 미흡한 전남 동부권 시·군 가운데 한 곳에 들어설 예 정이며, 전남도는 내년 용역을 통해 부 지·규모·예산 배분 기준 등을 결정할 방

전남도는 1일 "예향 전남의 매력 증진 과 미술문화 창달, 문화 소외지역인 동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바쳤다.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도립미술관은 건축비 200억원, 부지 및 작품 구입 100억원 등 모두 300억원(지역발전특별예산 80억원·지방비 220억원)이 투입될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2015년 예산에 4500만원을 반영해 도립미술관 건립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7월 기본계획 용역 및 위치 선정, 2016년 6월 실시설계 등에 이어 2016년 7월 착공해 2018년 상반기 준공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그렸다.

도립미술관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전남의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된 매력 있 는 미술관, 특색있는 소장품 구축 등 관광 객 유치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경쟁력있 는 미술관, 청년작가 창작 공간 조성과 미 술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청년작가의 희망 미술관, 건립·운영에 지역 작가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전남도 노래영 문화예술과장은 "도립 미술관이 없어 옥과미술관을 대체사용하 고 있으며, 전시시설이 매우 열악한 전남 동부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빛가람 첫 출근 환영합니다"

한국전력이 28년의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빛가람 시대'를 연 1일 오전 한전 본사 신사옥으로 출근하는 본사 직원들에게 한전 광주전남본부 및 나주시청 직원들이 꽃다발을 나눠주며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네이버·구글 최다 검색어 '날씨'·'세월호'

검색어 집계 1위···인기 인물은 김연아·영화는 겨울왕국

네이버와 구글이 집계한 올해의 최고 인기 검색어로 '날씨'와 '세월호'가 꼽혔

'날씨'는 구글과 네이버가 1일 발표한 2014 검색어 집계 결과에서 구글 전체와 네이버 모바일 부문(전년 대비 상승) 1위로 각각 꼽혔다.

'세월호'는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던 사회 관련 검색어로, 네이버 PC 부문에서는 검색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키워드이자 시사 분야 인기검색어로 뽑혔

r. - 구글의 2014년 인기 검색어는 날씨에 이어 옥션, 지마켓, 보배드림, 겨울왕국, 쿠팡, 알바천국, 11번가, 뽐뿌, 루리웹 등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사회 관련 검색어는 세월호에 이어 '노란 리본'과 '홍가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구원 파 연예인' 등 다수의 세월호 관련 검색어 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인물은 '김연아', 영화는 '설국열차', TV 프로그램은 '무한도전', IT기기는 '아이폰', 키즈 관련 검색어는 '겨울왕국', 게임 분야 검색어는 '마인크래프트', 쇼핑 분야 검색어는 '옥션', 브

랜드는 '아디다스'였다.

네이버의 경우 통합검색창에 올해 1~ 11월 가장 많이 입력된 최다 인기검색어 는 PC에서 '다음', 모바일에서 '날씨'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PC에서는 연중 꾸준한 유입량을 보이는 스테디 키워드인 '구글', '국민은행', '농협', '페이스북' 등이 10위권에 올랐고, 모바일에서는 스테디 키워드 이외에도 '웹툰', '영화', '일베' 등이 10위 안에 들어다

분야별 인기검색어 1위로는 '세월호' (시사), '비밀의정원'(책), '김연아'(인물), '겨울왕국'(영화)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Q 올해의 핫 클릭

NAVER Google

1 세월호	$\overline{}$	1 날씨	Q,
2 유튜브		2 옥션	T
3 아이폰6		3 지마켓	
4 일진의크기		4 보배드림	
5 만수르		5 겨울왕국	
6 유병언		6 쿠팡	
7 풋볼데이		7 알바천국	
8 송가연		8 11번가	
9 이카루스		9 뽐뿌	
10 겨울왕국		10 루리웹	
PC 검색어 기준			
자료/네이버 · 구글 ②연합뉴스			

전남 숙박시설 '안전불감' 여전

道, 무단 증축 등 194건 적발

전남도가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결과, 대부분이 안전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펜션 8곳, 관광생활형 숙박시설 10곳, 농어촌민박시설 5곳, 관광농원 3곳 등 숙박시설 26곳을 표본 추출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1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이 중 사안이 가벼운 137건은 현지시정했고, 38건은 보수·보강하도록 했다. 특히 담양 펜션처럼 건물을 무단 증축·용도변경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숙박시설도 5곳이나 됐다.

전남도는 무단증축·용도변경 한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처럼 표본조사 결과에서 숙박시 설의 안전규정 미비가 수두룩하게 적발됨 에 따라 도내 숙박시설 대부분도 안전규 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은 최근 담양 펜션 화재사고 이후 팬션, 민박 등 415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도 관계자는 "숙박시설들이 관행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선 시·군의 안전점검 결과가취합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명불허전 '화순 적벽'

한달여만에 5500여명 방문…매주 매진사례

30년 만에 개방된 화순 적벽이 전국적 인 탐방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개방 이후 적벽을 찾은 방문객 수는 5500 여명을 기록했다.

매주 3회(수·토·일요일) 진행된 적벽 투어는 모두 매진사례를 이어갔다.

광주와 전남지역 방문객이 36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26명, 경기 382명, 경남 313명, 서울 274명, 대구 122명, 인천 89명 등으로 집계됐다.

화순군은 향후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차량 탑승장소를 확대하며 쉼터와 안내 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적벽 투어는 사전예약 인원에 한해 겨 울철(12~2월)을 제외한 주 3회(수·토·일요일) 오전과 오후 전용버스를 통해 이뤄진다. 적벽 투어 홈페이지(http://bus.hwasun.go.kr/board/iseo/sub/sub01.html)를 참고하거나 화순군 문화관광과(061-379-3501)로 하면 된다.

전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된 적벽은 붉은색 기암괴석과 가을단풍이 어우러진 '화순 제1경'으로 특히 호수에 비친단풍과 바위는 절경을 자랑한다. 1985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지만 지난 10월 윤장현 광주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가상생발전을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 가능

화장률 큰 폭 상승 현실 반영 '자연장' 규제 완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목장이 가능해진다.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제한이 사라지고 표지 규격도 확대되는 등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맞춰 현행 장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 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 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화장률이 2003년 46.4%에서 지난해 말 76.9%로 크게 상승한 것을 고려해서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앞으로 수 목장을 위한 수목장림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 치할 수 없다. 다만, 수목장림의 규모는 3 만㎡ 미만이어야 하며, 휴게실, 안내실 등의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 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D.→ M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疆 1899-3975 H.P 010-3598-7080

